

KIA, '대투수' 양현종은 잡았다… 2+1년 45억 재계약



계약금 10억원에 연봉·인센티브 포함 FA
“유니폼 벗는 순간까지 꾸준함 보여줄 것”
남은 건 조상우…외국인·아시아워터 등 주목

타이거즈의 ‘리빙 레전드’ 양현종이 KIA와 동행을 이어간다

KIA는 4일 “양현종과 계약 기간 2+1년에 계약금 10억원, 연봉·인센티브포함 총액 4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현종은 2016년, 2021년에 이어 KIA와 세 번째 FA 계약을 하게 됐다.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년 2차 1라운드로 KIA에 지명된 양현종은 올해까지 18시즌 동안 543경기에 등판, 2656.2이닝을 던지며 186승 2185탈삼진 평균자책점 3.90을 기록 중이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21시즌을 제외하고 18시즌을 KIA에 몸담으며 무수히 많은 기록을 써내려 왔다. 매 시즌 KIA 선발의 한 쪽을 담당하며 리그 최다 선발 출장 1위(442경기), 최다 선발승 1위(184승), 최다 탈삼진 1위, 역대 최다 이닝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양현종은 이닝 부문에서 대기록을 작성하며 꾸준한 면모를 과시했다. 2024시즌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달성을 이어올 시즌에는 리그 최초로 11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라는 금지탑을 쌓았다.

이번 계약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된 양현종은 통산 3000이닝(역대 2번째), 최다 이닝, 최다

승 기록 경신도 앞두고 있다. 또 1988년생인 양현종은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운 2028년이 되면 만 40세가 된다. 사실상 KIA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 할 확률이 높다.

양현종은 “언제나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운드에 올랐던 때 순간마다 보내주신 타이거즈 팬들의 합성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기회를 준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뛰는 동안 우승도 해보고 많은 기록을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유니폼을 벗는 순간까지 꾸준한 모습을 타이거즈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내는 선수가 되겠다”며 “베�테랑 선수로서 후배 선수들에게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줄 것이고, 선수단 모두와 힘을 합쳐 팀이 다시 한번 정상을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심해학 KIA 단장은 “양현종은 KIA타이거즈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이다. 앞으로도 후배 선수들을 이끌며 ‘리빙 레전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



KIA는 4일 “양현종과 계약 기간 2+1년에 계약금 10억원, 연봉·인센티브포함 총액 4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현종은 2016년, 2021년에 이어 KIA와 세 번째 FA 계약을 하게 됐다.

대한민국”고 말했다.

한편 KIA는 이번 계약으로 양현종을 불집으면서 내부 FA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찬호·한승택·최형우는 떠났고, 투수 이준영과는 일찌

이 재계약을 마쳤다. 남은 건 조상우뿐이다. 조상우는 올 시즌 72경기 6승 6패 60이닝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기록한 불펜의 중심이다. 팀 내 가장 많은 홀드 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책임졌다. KIA는 조상우의 진류에 집중한 뒤 아시아워터, 외국인 선수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부천을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 광주FC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광주FC, 코리아컵 결승서 창단 첫 트로피 노린다



내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결승전 맞대결
헤이스 등 공격진 기대…“아시아 무대 다시 도전”

프로축구 광주FC가 대한민국 축구 최강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창단 첫 우승 축포를 노린다.

광주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른다. 앞서 광주는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부천을 1·2차전 합계 4-1로 앞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광주가 코리아컵 결승에 오른 것은 창단 후 처음이다.

올해 광주는 다양한 금지탑을 쌓았다. K리그 1 3년 연속 진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 등 시민 구단의 한계를 딛고 맹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 마지막 일정인 코리아컵 결승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돌풍의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이번 결승전 상대인 전북은 K리그1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 짓는 등 압도적 선두의 힘을 과시했다. 최다득점(64점)과 최소실점(32점)을 기록한 정도로 공·수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선수단 역시 막강하다. 주장 박진섭을 필두로 골키퍼 송병근, 수비수 흥정호, 미드필더 김진규 등 6명이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다. 여기에 리그득점 2위 전진우(16골), 안드레아 콤파뇨, 이승우 등 초호화 전력이 포진해 있다.

더욱이 전북은 코리아컵에서 5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다.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면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최다 우승팀에 등극하는 만큼, 동기부여 또한 확실하다.

광주는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1무 2패를 기록했다. 팀 전력에서도 밀리는 게 현실이지만, 단판 승부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특히 광주가 이번 코리아컵에서 우승하면 아시아챔피언스리그2(ACLE2) 참가 자격을 얻는다.

다시 한번 아시아 무대를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최근 페이스 역시 좋다. 직전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는 외증에 단 1실점만을 허용했다.

그 결과 시즌 최종 실점은 54점으로 리그 7위에 자

리했으며, 이는 파이널A에 진출한 서울·강원보다 높은 수치다.

토너먼트에선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한다는 축구계 오래된 격언에서 알 수 있듯 물오른 수비진의 퍼포먼스는 광주의 정상 도전에 큰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공격진 역시 바짝 날이 서 있다. 특히 고무적인 대목은 10~11월간 헤이스, 오후성, 박인혁, 신창무, 프리드윤, 최경록 등 다양한 선수가 골망을 보며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이 폭넓어졌단 점이다.

지원 사격과 응원 열기 또한 역대급이다. 구단은 광주·서울 간 운행되는 서틀버스 총 61대를 동원해 1700여명의 팬들과 함께 서울로 이동할 계획이다. 현재 중립 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람석엔 광주 팬존 기준 7000여명의 팬들이 예매를 완료해 결승전이란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정호 감독은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해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아시아 무대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다”며 “올 시즌 광주의 마지막 경기다. 많은 팬 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면 우승으로 향하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 선수단 해단식

원정 역대 최고 성적…“내년 체전도 기대”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3일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전남 선수단·종목단체 회장, 감독, 코치 등 280여명이 참석해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을 축하했다.

앞서 전남 선수단은 전국장애인체전에서 30개 종목에 400여명이 출전해 금 44개, 은 54개, 동 57개 등 총 155개의 메달과 함께 10만5928점을 획득하며 2024년 성적 대비 2단계 성장한 종합 7위를 기록했다.

이번 해단식은 참가 성적 보고, 선수단기 반환, 상배봉정, 시상, 치사 순으로 열렸다. 상배봉정은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한 카누와 쇼다운, 2위의 롱볼, 3위 사이클과 당구 종목 순서대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전남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준 정성만 1대 상임부회장과 보해양조 문상오 목포지점장 등 11명에게 수여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바둑, KBF바둑리그 정규리그 ‘2연패’

전남도바둑팀이 ‘2025 KBF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은 2연패 페어거나.



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바둑팀은 12개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정규리그에서 10승 1패, 개인 승리 41승을 기록하며 최종상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대회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남은 이로써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 바둑팀은 기병도 단장과 신철호 감독을 중심으로 남자 선수 4명(김진우, 김현석, 신현석, 흥근영)과 여자 선수 3명(김현아, 이루비, 한유정)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 부안군 특별대국장에서 열린 9~11라운드 경기에서 파죽의 3연승을 추가하며 최종 10승 1패를 기록, 우승을 확정 지었다.

특히 11라운드에서 정규리그 경쟁팀인 전북 부안군에 5-0으로 완승하며 최종 1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 팀워크와 집중력이 결실을 맺었다.

전남에 이어 군포시(8승 3패·개인 승수 37), 부안군노을(8승 3패·개인 승수 35), 부천시(8승 3패·개인 승수 34), 부산이봉장학회(7승 4패·개인 승수 30)가 포스트시즌 티켓을 획득했다.

개인 성적에서는 김정선(부천시)이 남자 다승상(10승 1패)을, 전남 소속이지만 한국바둑고교 출전한 악지우(한국바둑고교 1년·소년체전 단체전 3연패)가 여자 다승상(10승 1패)을 수상했다.

2025 KBF바둑리그 포스트시즌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플레이오프가, 17일부터 19일까지는 웹파인결정전이 3번기 형식으로 K바둑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